

# 벤투 “손흥민 컨디션 좋다…오늘 이라크전 승리할 것”



벤투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1일 경기도 NFC에서 선수들의 훈련 모습을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오후 8시 서울에서 2022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 지역 최종예선 “자신감 있고 선수들 믿어 … 최선의 경기력으로 결과 만들어야”

2022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지역 최종예선 시작을 앞둔 파울루 벤투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은 과정과 결과를 모두 잡겠다는 자신감과 의지를 드러냈다.

벤투 감독은 이라크와의 최종예선 1차전을 하루 앞둔 1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공식 기자회견에서 “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다. 선수들을 믿고 있다”며 “최선의 경기력으로 결과를 만들 거로 믿는다”고 각오를 다졌다.

벤투 감독이 이끄는 대표팀은 2일 오후 8시 서울 월드컵경기장에서 이라크와의 경기로 최종예선을 시작한다.

첫 상대인 이라크에 대해 벤투 감독은 “포백과 파 이브백 등 다양한 전술을 가동한다. 최근엔 감독도 바뀌어 새 사령탑 체제 첫 경기에서 빌드업 등 다른

경기 스타일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상대는 세컨드 볼을 따낼 때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수비도 강하게 하는 특징이 있다”면서 “우리도 우리의 스타일대로 경기하되, 높은 강도로 적극적으로 임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2006 독일 월드컵 때 한국 대표팀을 이끌었던 딕 아드보카트(네덜란드) 감독이 지휘봉을 잡은 이라크는 지난달 유럽에서 전지 훈련을 소화하며 한국전에 대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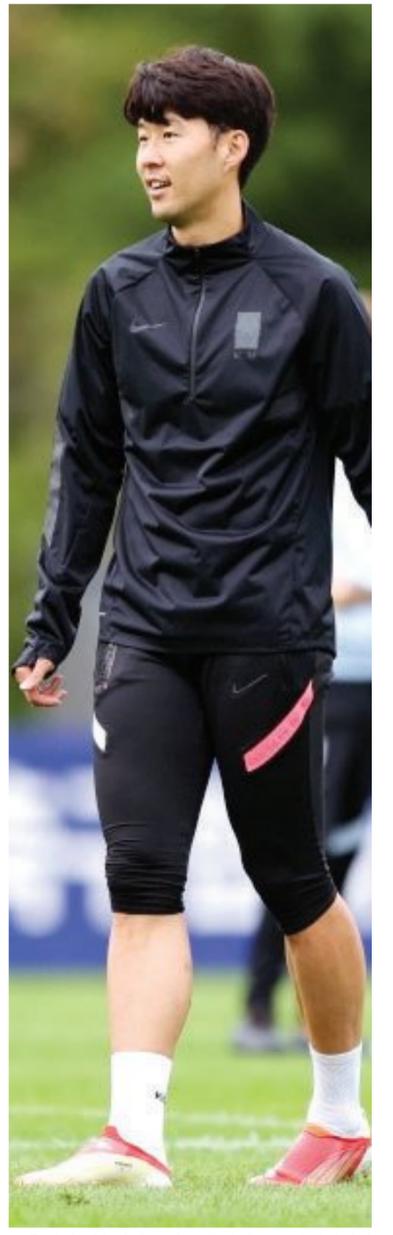
이와 관련해 벤투 감독은 “상대에게는 그런 부분이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우리에게 변명이 될 수는 없다”면서 “어떤 컨디션으로 경기에 들어갈지 이미 알고 있었고, 우리가 처한 조건에 맞게 최적의 방법으로 준비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중동 팀에서 자주 나타나는 이른바 ‘침대 축구’ 대응과 관련해서도 “전에도 말씀드렸듯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선수들에게는 우리의 플레이로, 올바른 자세로 임하라고만 주문한다”면서 “내일도 다른 경기도 걱정되지는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객관적 전력이나 상대 전적 등 모든 면에서 한국이 앞서는 게 사실이지만, 간판스타 손흥민(토트넘)을 비롯해 전력의 핵심인 유럽파 선수들이 경기이틀 전인 지난달 31일 합류해 손발이 맞출 시간이 거의 없었다는 건 변수가 될 만한 부분이다.

벤투 감독은 “오늘 처음 모든 선수가 참가한 가운데 훈련했다. 쉽지 않은 상황인 건 맞지만, 거기에 맞게 적응해야 한다”면서 “소집된 선수들 모두 경기할 만한 좋은 컨디션을 지녔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라크전에 나설 선수는 내일 오전 훈련 이후 출전할 선수를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손흥민이 1일 경기도 파주 국가대표 트레이닝센터(NFC)에서 훈련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류현진, 노히트와 패전 아웃카운트 1개 차이



1일 캐나다 온타리오주 토론토 로저스 센터에서 열린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토론토 블루제이스 대 볼티모어 오리올스의 경기 첫 이닝에서 토론토의 류현진(34)이 선발 등판해 역투하고 있다. /연합뉴스

반등이 필요했던 류현진(34·토론토 블루제이스)이 ‘믿는 구석’ 볼티모어 오리올스에 일격을 당했다.

류현진은 1일(한국시간) 캐나다 온타리오주 토론토 로저스 센터에서 열린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홈 경기에서 볼티모어 오리올스를 상대로 선발 등판, 5%이닝 3피안타 3볼넷 6탈삼진 3실점을 기록했다.

6회초 2사까지 볼넷 2개를 내주긴 했지만 ‘노히트’ 행진을 이어갔다. 하지만 이후 2루타, 1타점 적시타, 볼넷, 2타점 2루타를 연달아 허용하며 무너졌고, 볼펜 애덤 심버로 교체됐다.

팀이 2-4로 패하면서 류현진은 시즌 8패(12승)째를 당했다.

상대가 볼티모어였기에 더욱 뼈 아픈 패전이다.

류현진은 약물의 8월을 보냈다. 5경기에서 2승 2패로 부진했다. 특히 지난 27일 시카고 화이트삭스전에서는 3%이닝 7실점 ‘최악투’로 고개를 숙였다.

볼티모어를 상대로 분위기를 바꿔야 했다. 볼티모어는 올 시즌 메이저리그 최악의 팀이다. 이날 경기 전까지 40승 90패로 아메리칸리그 동부지구 최하위에 머물러 있다. 승률은 0.308로 메이저리그 전체에서 가장 낮다.

류현진은 볼티모어만 만나면 필멸 날았다. 올 시즌 3경기에서 모두 승리할 것을 포함해 볼티

볼티모어전 6회 2사 이후 집중타 맞고 통한의 역전패 다승 공동 선두 기회 놓쳐

모어를 상대로 통산 6경기 4승 평균자책점 2.95로 강했다. 볼티모어는 류현진의 ‘승수 자판기’라는 말도 나왔다.

하지만 이날 류현진은 볼티모어 상대 7번째 경기에서 첫 패전을 당했다.

현시시간으로 이날 경기는 8월 31일 열렸다. 이 기준으로 류현진의 8월 6경기 평균자책점은 6.51에 이른다. 류현진의 시즌 평균자책점은 3.88에서 3.92로 상승했다.

시즌 13승 달성도 물거품으로 돌아갔다. 이날 승리했다면 류현진은 게릿 폴(뉴욕 양키스)과 나란히 아메리칸리그 다승 공동 선두에 오를 수 있었다.

류현진은 화이트삭스전 패전 후 “제구가 문제였다”, “안 좋은 날에 한 이닝에 점수를 몰아서 주는 경향이 반복된다”며 개선점을 짚어냈다.

하지만 류현진은 스스로 설정한 속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6회 집중타를 맞기 전까지는 흐름이 좋았다. 험스트링 부상으로 이탈했던 포수 데니 잰슨의 복귀가 호재였다. 잰슨은 지난달 24일 부상 자명단(IL)에 올랐다가 이날 돌아왔다. /연합뉴스

류현진은 최근 7경기에서는 포수 리즈 맥과이어와 호흡을 맞췄다. 이 시기 류현진은 잘 던졌다가도 다음 경기에서 무너지는 기록을 보였다.

류현진이 마지막으로 잰슨과 호흡을 맞춘 경기는 7월 19일 텍사스 레인저스전이다. 당시 7이닝 무실점으로 호투했다.

오랜만에 잰슨과 재회한 류현진은 초반에는 조금 어색해하는 듯했다. 1회초 볼넷 2개를 던지고, 도루 허용도 했다.

하지만 점차 안정을 찾았다. 평소보다 작구 구사율(48%)을 높인 류현진은 3회초 8개, 4회초를 5개의 공으로 정리하며 투구 수를 아꼈다. 5회초에는 삼진 3개로 ‘KKK’ 이닝을 만들었다.

잰슨은 3회말 솔로포를 터트리며 타격으로도 류현진을 도왔다.

류현진은 1-0으로 앞선 6회초 1사 후 세드릭 멀린스의 내야 뜬공을 직접 오른손 글러브로 잡아낸 뒤 살짝 미소를 짓기도 했다.

그러나 류현진의 미소를 다시 볼 수는 없었다. 류현진은 다음 타자 라이언 마운트캐슬을 상대하면서 잰슨과 오랜 시간 구종을 상의했다. 그러나 결과는 우월 2루타였다. 류현진의 이날 첫 피안타다.

다음 타자 오스틴 헤이스에게는 동점 중전 적시타를 맞았다.

안도니 산탄데르에게 스트레이트 볼넷을 내준 류현진은 2사 1, 2루 위기에서 라몬 우리아스에게 섹스이 2루타를 내주고 쓸쓸하게 강판당했다. /연합뉴스

## “맨유는 내 마음 속의 클럽” 호날두, 이적 계약 서명

“맨유는 항상 내 마음속에 특별한 자리를 차지한 클럽이었다.”

2009년 레알 마드리드(스페인)로 이적하며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이하 맨유)와 작별했던 크리스티아누 호날두(36)가 12년 만에 맨유 유니폼을 다시 입었다.

맨유는 1일(한국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호날두가 2년 계약에 1년 연장 옵션을 포함한 조건에 계약서에 서명했다”라고 발표했다.

지난달 28일 호날두 영입을 공개한 맨유는 EPL 여름 이적시장이 마감됨에 따라 그의 합류를 공식 발표했다.

2002년 스포르팅(포르투갈)에서 프로에 데뷔한 호날두는 2003년 맨유에 입단, 알렉스 퍼거슨 전 감독의 조련 아래 6시즌을 뛰면서 월드컵클래스 골잡이로 성장한 뒤 2009년 레알 마드리드로 이적했다. 호날두는 맨유 시절 292경기에 출전해 118골(정규리그 84골 포함)을 작성했다.

2018년 유벤투스(이탈리아)로 이적한 호날두는 만족스러운 결과를 내지 못하면서 ‘부자구단’ 맨체스터 시티(잉글랜드) 이적설이 불거졌다.

이러자 맨유의 퍼거슨 전 감독과 ‘레전드’ 리오 퍼디난드가 호날두 설득에 나서면서 12년 만에 맨유 복귀가 완성됐다.

복귀 발표 이후 맨유 유니폼을 처음 입고 구단 홈페이지에 등장한 호날두는 “맨유는 항상 내 마음속에 특별한 자리를 차지한 클럽이었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그는 “지난달 28일 복귀 소식이 공개되면서 받았던 메시지도 나의 마음을 벅차게 했다”라며 “빨리 팬들로 꼭 찬 울드 트래퍼드에서 뛰고 싶다. A매치 기간이 끝나고 난 뒤 맨유 합류를 기대하고 있고, 이번 시즌 성공적이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 황의조 스포르팅 이적 무산 올 시즌 보르도에 남는다

프랑스 프로축구 리그1 지롱댕 보르도의 ‘골잡이’ 황의조(29)의 이적 가능성이 작아졌다.

보르도 구단의 소식을 전하는 ‘지롱댕인포’는 1일(한국시간) 트위터 계정을 통해 “황의조가 스포르팅(포르투갈) 이적에 동의하고 구단도 1200만 유로(약 165억원)의 이적료에 합의했지만 거래에 포함됐던 조반 카브라우가 제안을 거부했다”라며 “이적 작업은 무산됐고, 황의조는 이번 시즌 보르도에 남게 됐다”고 밝혔다.

또 프랑스 매체 ‘20minutes’의 클레망 카르팡티에 기자도 이날 트위터 계정에 “다나모 모스크바(러시아)도 황의조의 영입을 원했지만 황의조가 이를 거부하고 있다”라며 보르도 잔류 가능성을 전했다. /연합뉴스

## 양현종, 한경기 던지고 마이너리그로 내려가

양현종(33·텍사스 레인저스)이 단 한 경기만 던지고서, 마이너리그 트리플A로 내려갔다.

텍사스 구단은 1일(한국시간) “양현종이 트리플A 라운드룩으로 돌아간다”고 발표했다.

코로나19 관련 부상자 명단(IL)에 올랐던 포수 요나 하임이 복귀하면서, 양현종이 현역 로스터(26명)에서 밀려났다. 양현종은 40인 로스터에는 이름을 올리고 있다. 빅리그에서 8경기 3패 평균자책점 5.59를 기록하고 6월 17일 마이너리그로 내려간 양현종은 팀 내에 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접촉자가 발생하자, 지난달 25일 빅리그 재입성에 성공했다. 그러나 등판 기회는 단 한 차례만 주어졌다.

양현종은 같은 달 29일 휴스턴 에스트로스와의 홈경기에 구원 등판해 2이닝을 3피안타 무실점으로 막았다. 양현종의 메이저리그 성적은 9경기 3패 평균자책점 5.23이 됐다. /연합뉴스